



ISSUE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파장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사태 경과

- ◆8월 26일 -한진해운 자구안 제출
채권단 요구 자구책 7,000억 규모, 한진측 자구책 4,000억원선
- ◆8월 28일 -한진그룹 '한진해운 법정관리 위기에 대한 한진그룹의 입장' 발표
해외금융기관이 한진해운 살리기에 동참했으며 법정관리 피하러 선박금융 유예, 용선료 협상 등 노력중임 표명
- ◆8월 29일 -선주협회와 정유협회회원 주최 국회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시 피해규모 17조원 예상 강조하며 국내 1위 글로벌 7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지속적인 생존의 이유 외침
-정부와 금융권의 참여 없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쳐
-부산지역사회 '부산항에 치명타, 한진해운 법정관리 꼭 막아야' 첫 긴급성명
- ◆8월 30일 -채권단 한진해운 자구안 부인 자율협약 중단 발표
-한진그룹 '경영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 결정 안타깝다' 공식입장과 법정관리행 시사
-부산지역 기관단체 '한진해운 살리기' 공동성명서 내고 기자회견
-해운업계의 전일 한진사태의 파장에 대한 간곡한 진언을 채권단은 부풀려진 주장으로 치부하고 금융권 논리로 자구안 부결 결정
- ◆8월 31일 -한진해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부산지역기관단체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집결, 한진해운 살리기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파급효과와 부산경제 및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발표 결의
-오전 해수부 차관 주재 첫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 대책 회의' 선주협회, 항만공사 관련기관 들과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해운항만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독일선주 리크머스 미지급용선료 건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한진로마' 호 가압류 신청, 싱가포르 선주 PIL 용선료 체불 이유로 '한진 멕시코호' 운항중단 요청
-싱가포르항, 중국 샤먼 및 신강항, 스페인 발렌시아항, 미국 서베너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의 항만 사용자 미지급 우려로 한진선박 입항 거부 사태
-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하루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무역협회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화물 물류 애로신고센터 운영 시작
-현대상선 '비상상황실' 가동, 한진해운 법정관리 따른 운송차질과 화주피해 최소화 지원 밝혀
- 회생절차 신청이후 하루만에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거부와 압류 위기 등 문제 동시다발적 발생
- ◆9월 2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챗터 15)에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6일 미국법원 임시 수용, 9일 추가심리 통해 채권자 보호여부 확인
-관리 개시 불과 이틀만에 아시아발 주요항로 스팟 컨운임 42% 급등
- ◆9월 3일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53척 (컨선 48척, 벌크선 3척) 비정상 운항
-이후 매일 항만과 운하 등에서 입항 및 통항거부 선박 66(68)척에 달해
- ◆9월 4일 -해수부 장관 주재 9개 부처 차관대책 회의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지원대책 검토
-해수부 비상대응반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 공동담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 확대 개편, 일일단위 상황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마련 정부부 총력 대응체제 구축기로
-한진해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 신청, 해당국에 조속한 절차 진행 요청, 한진해운 선박의 해외압류 사례 최소화 노력
-현대상선에 13척 대체투입 결정 (미주노선에 4척, 유럽 노선에 9척 투입)
-관세청 화물업계와 핫라인 구축,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 ◆9월 5일 -현대상선 유창근 IPA 사장 내정, 한진사태 긴급 대응
-한진해운 선박승선 선원에 생필품 공급 결정 (9월 2일 법원에 선내 생필품 필수비용 신청, 5일 승인-한진 유럽, 한진 뉴욕호 등 선박 6척에 보급)
-22개국 44개 항만에서 73척 (컨선 66척, 벌크선 7척) 비정상 운항, 입출항 금지되거나 체불대금 지급 이유로 작업 거부사태
-ESC(유럽화주위원회), 한진사태 반출거부 터미널에 글로벌무역흐름 위해 반출요구
- ◆9월 6일 -선박 입항거부로 공해상 대기선박 승선선원의 근무질과 심리안정 등의 문제 부각, 상선연맹 억류선원 보호대책 마련 요구 성명서 내
-한진그룹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결정 발표, 조양호 회장 400억, 최은영 회장 100억, 한진그룹 600억원 조달안 내
-해수부 BPA, YGPA와 한진해운 환적화물 조속한 회복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 긴급 확대개편, 부산항 80억, 광양항 21억 총 101억 지원키로, 특히 부산항 컨터미널간 발생 환적 컨테이너 운송비 전액 지원
-상선연맹 한진사태 따른 선원보호대책 요구 성명서 내
-해수부 장관 국내외 주요선사 간담회

- ◆9월 7일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 상경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앞과 금융위원회앞 시위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회 개최, 한진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에 한진그룹의 즉각적 대책 촉구-역류화물에 대한 직접적, 즉각적, 실효적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납기 지연, 클레인 제기, 바이어 이탈, 도산 등 최악의 상황 방지 요청
-무역협회 대체선 13척 사태수습에 절대부족 추가선박 투입 요구, 선박 및 화물정보 공유 요청, 항만현황과 화물유치 실시간 파악 대응 건의, 물류대란 방지 물류대응시스템 구축도 주문, 화주협회의 화장 정부와 한진해운의 시의적절한 노력 촉구
-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트레이드 콜센터' 통해 화주피해사례 접수
7일 오전 161건 접수 수출피해 7,000만달러 집계
- ◆9월 9일 -'현대 포워드' 호 미주노선 첫 대체선 출항, 18일 '현대 플래티넘호' 부산출항
-미 뉴저지 법원 스테이오더 승인
-KOTRA, '한진해운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발표(본지 해양자료실 참조..P)
- ◆9월 10일 -홍비치항 하역 재개
- ◆9월 12일 -국제물류협회 포워드 실제 피해상황 파악 시작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 해운역사상 유례 없는 피해 발생, 1차 해운항만물류시장의 차질 2차 포워더업체와 화주기업 피해 발생 상황 인식
-산자부 4,000억원 규모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 계획 발표
-한진해운 국내 화주대상 안내 이메일 발송 1:1 전화상담으로 화주에 화물과 선박의 위치, 도착항만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밝혀, 헬프 데스크 운영
- ◆9월 13일 -한진해운 '물류혼란 조기해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보도자료에서 사태해결 노력 의지와 처리경과 밝혀, 당일 기준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임시) 스테이오더 허가완료,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스테이오더 신청중 밝혀
-한진해운 부산, 싱가포르, 미국 뉴욕 롱비치 시애틀,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알헤시라스 거점항구로 선정 밝혀
-한진 홈페이지에 선박 비정상 운항상황 등재, 화주문의 응대 국내외 '헬프데스크' 운영, 공해상 대기 선원들에 선용품 공급과 안전, 해외주재원 신변보호 대책 마련중 밝혀
-현대상선 한진 법정관리 개시 사전에 인지 의혹제기에 해명자료 내
- ◆9월 19일 -BPA 부산항 선박 항만시설 사용자 감면 발표
-한진사태로 부산항 연계운송 차질로 인한 환적화물 이탈 및 부산항 환적네트워크 약화 방지목적
-9월 1일-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서울지방법원 '한진해운 사태 긴급 간담회' 개최
용선료 연체와 화주 손해배상청 구로 공익채권 조단위 넘어 회생계획 수립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발이 묶인 한진 배에 실린 화물가액만 15조원 규모 밝히고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우려, 법정관리 이후 하역비, 용선료, 유류비등 비용 급증 물류대란 해소 최소비용만 1700억에서 2700억원 늘어 현황 밝혀
-법원 사태 해소에 한진해운과 채권단 압박 평가
-한진해운측 각종 항만 하역협상 과정에서 기존 미납대금까지 요구, 하역지체 따른 비용부담 하루에 용선료와 유류비용 24억원 추산, 법정관리이후 미지급 용선료만도 400억원으로 드러나
- ◆9월 21일 -국제물류협회·국토부관계자 한진사태 관련 포워드 애로청취 간담회
4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적재 97척 선박의 비정상 상태로 해운항만물류 피해 급증
-한진해운 공식정보 채널 부재, 선박접안 및 컨하역후 관련업체 비용요구
-한진해운의 무리한 채권 회수행태 (회항비 요구, THC 2중 청구, 체선 및 지체료 요구, 대체운송에 따른 향후 처리문제 등 애로 피력)
-국내항으로 회항 선박(35척)의 구체적 처리절차, 비용 발생내역 등 주요정보 제공돼야 대비책 마련 및 화주에 정보 전달 의견 개진
-포워드 피해예상금액 파악중, 산자부 4,000억원 규모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
-현대상선 유럽노선 4,000teu급 대체선 29일 투입 확정
-부산시민비상대책위 '이제 한진해운살리기 정부가 직접 나서라-한진해운 파산 절대 안된다'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
-대한항공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600억원 지원 의결, 이사회 배임우려 논란으로 5차례 회의 끝에 지원결정, 한진그룹 6일 밝힌 1000억원 (조양호 회장 한진칼과 ㈜한진 주식 담보 400억 +600억) 지원이 성사됨
- ◆9월 22일 -KDB은행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500억원 추가 지원 결정
- ◆9월 23일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부산역광장 촛불집회 100만인 서명식

